

24호, 2020년 7월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서울숲 컨서번시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시설팀 인터뷰
공원을 위한 시설, 시설팀

서울숲 자원봉사 이야기

3탄: 서울숲 나무벤치 옷 입히기

서울숲 다시보기

15번째 서울숲 생일,
즐기로운 공원활용법 LIVE 행사 리뷰

서울숲 단신

함께해요, 서울숲 쓰담쓰담

수국정원, 겨울정원, 이트 벤치가든
서울숲 신규 정원 오픈

서울숲 Youtube 채널 구독 이벤트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시설팀 인터뷰

공원을 위한 시설, 시설팀



△ 서울숲 시설팀 김유영 스텝

△ 서울숲 시설팀 양승환 스텝

△ 서울숲 시설팀 강상호 매니저

△ 서울숲 시설팀 채석재 선임매니저

도시에 조성된 공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조성해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무, 꽃, 동물과 곤충만이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런 자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많은 인위적인 시설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숲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이를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으려면,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지요. 식물에게 물을 주는 일, 공원에 물이 흐르게 하는 일, 시민들이 걷는 길,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 등, 서울숲의 자연은 많은 노력에 기대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원의 안전 및 소방 관리부터 환경, 전기, 기계, 설비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팀을 만나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설팀은 워낙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셔서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별로 없다. 공원의 시설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채석재 엄밀히 말해 시설팀이 아니라 시설관리팀이다. 모든 것을 뒷받침 해주는 인프라, 자원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유지관리한다. 시설팀은 최상이 아니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상이 아니라 최적의 상태란, 어떤 의미인지?

채석재 공원은 '최고급'이나 '최신'의 것을 지향하는 게 맞지 않단 뜻이다.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밸런스를 잘 맞춰야한다. 시설물 외의 것들과 조화되어야하고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해야한다. 적정선을 찾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 말고도 시설팀에게는 녹지 담당 팀과의 밸런스도 중요하다. 시설관리의 편리성만

추구하다보면 녹지관리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처음에 우리가 서울숲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갈등도 있었다. 지금은 모두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항상 쉽지는 않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시설팀은 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구역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공원 시설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만나기 어렵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들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해 달라.

김유영 전체적인 시설 일을 한다. 구분하기 어렵다.

채석재 건축, 목공, 영선, 기계, 전기, 설비, 소방 등의 분야가 있다. (영선?) 예를 들면 책상 다리, 문고리, 손잡이 등을 수리하면 그건 다 영선이다.

강상호 영선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하다못해 오일스테인, 페인트칠하는 보수도 다 영선이다. 시설물 보수 전반을 통칭해서

영선이라고 한다.

김유영 벤치 같은 것도 다 영선이다. 나무 자르는 부분은 목공이지만 그 외에 부분은 영선에 속한다.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한다. 이전에도 시설(관리) 일을 오랫동안 했다.

양승한 나도 기계나 전기, 소방 중에 고도로 전문화 된 분야를 제외한 영선 등의 분야는 골고루 다 한다.

채석재 기계, 전기, 목공, 영선 등을 너무 명확하게 나누면 오히려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 하다못해 벤치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이거는 영선인지 목공인지 뭘지 애매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전문분야가 있더라도 두루두루 한다. ‘나는 목공이면 목수 일만 한다’는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서로 배우고 익히고 같이 일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IT 엔지니어였고, 서울숲에서 기계, 전기, 소방을 주로 맡고 있지만 시설 업무 전체를 하고 있다. 시설팀은 기본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강상호 나는 목공을 포함해서 영선 전반의 일을 주로 해왔고 하고 있다. 서울숲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설 전반의 일을 한다.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하다보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채석재 시설팀이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다들 경험이 많다. 꼭 시설 경험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서로 다른 분야를 나누고 할 필요가 사실상 없기도 하다. 다들 주특기가 있으면서 올라운드플레이를 한다.

그럼 혹시 주특기가 어떻게 되시나?

김유영 나는 주로 나무를 다루는 쪽이 경험이 많고 주특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특기를 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 같이 작업을 하니까.

양승한 나는 주특기나 전공을 떠나서 서울숲 시설 및 설비 모든 걸 유지 관리하고 신설도 할 수 있게 하는 팀의 역량을 위해 새로운 걸 습득하면서 일하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시설 관련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걸 새롭게 하는 게 내 주특기다. 청소부터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 업무들이 있다. 작업을 하면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돈도 해야 하지 않나? 사후 정리. 뭐 하나가 주특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설팀은 전반적인 걸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40년 정도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했다.



이번에 생태숲(사슴우리) 울타리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목재를 경계목 등으로 재활용했다고 들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를 어떻게든 활용하고자 한 의지가 더 빛나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인터뷰의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이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강상호 폐목재가 약 400개 정도 나왔다. 사슴사 울타리가 오래 되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나온 폐목재가 예상보다 많았다. 목재가 너무 노후 되서 훼손이 많이 되어있었는데, 이렇게 나온 오래되고 훼손된 목재가 양이 엄청나다보니 그냥 버리는 게 활용하는 것보다 쉬운 일인 건 맞다. 그런데 이를 버리는 비용도 있고 공원에 경계목이 필요한 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폐목재를 경계목으로 재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원 내에 판석길이 많지 않나? 거기에 경계목으로 다 설치를 했다.



▲ 서울숲 생태숲 울타리 공사에서 400여 개의 폐목재가 발생했다.

왜 하필 판석길인가?

강상호 판석은 돌길을 예쁘게 만드는 넓은 판 모양의 돌조각인데 이게 판이다 보니 잘 깨진다. 그래서 사이사이 흙이 잘 차 있어야 깨지지 않고 오래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쓸려가서 자꾸만 판석길에 다시 흙을 채우지 않으면 파손이 일어나고 한다. 발이 걸려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외관상 보기도 안 좋다. 그래서 빗물에 흙이 쓸려가지 않도록 경계목을 대서 흙을 가둬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거다. 공원의 거의 모든 판석길에 경계목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그리고 거울연못 옆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있는데 사이에도 폐목재를 활용해 나무 길을 만들어 냈다.

김유영 현재 오작교에서 쪽 내려오면 가족마당 쪽으로 길게 판석길이 있다. 거기는 작업이 예정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했다. 판석길 말고도 더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폐목이 거의 소진되었다.

채석재 폐목은 버리는 데에도 비용이 소용되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목재를 버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지만, 토사 유실로 판석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배수로나 막히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들이 더 있다.

강상호 사실 이전에도 쓰러져 벤 나무나 기타 시설물에서 나온 소량의 폐목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는 했다. 나무 장식품, 인형을 만들기도 했다. 아마 방문자센터 옆에 통나무로 만든 사슴조형물을 봤을 거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폐목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었던 건데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다.

조각품 하니 생각난 건데,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시설 관련 사진파일을 받았는데 거기에 다른 공원에서 찍은 나무 조각 장식품 사진도 보이더라. 보면서 서울숲 시설팀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시설을 넘어 경계를 확장한 것 같다.

채석재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경계가 모호해진 탓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설의 업무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던 녹지 업무와의 균형이라는 것도 이런 고민에서 나온 거다. 공원이 아닌 시설만 관리했던 관성에 젖어 시설관리에 최적화하는 식으로만 시설팀을 운영한다면 아름다운 자연, 야생동식물, 특히 큰 나무 같은 것들은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다. 그런데 시설도 공원의 시설이고, 공원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 시설에만 맞춰 일하면 안 된다.



이번 폐목재 활용 같은 사례들이 또 있나?

채석재 많다. 쓸 수 있는 건 거의 안 버린다고 보면 된다. 버려진 판석, 보도블록 등을 재활용하고 있다. 그런 건 폐기물로 버리지 않고 목공소 등으로 가져간다. 거기서 필요할 때 활용한다.

양승한 체육공원 실개천 쪽에서 가족마당으로 들어가는 쪽에도 다른 데서 철거해 버려진 판석을 모아뒀다가 재활용했다.

채석재 숲속놀이터 화장실 옆에 올라가는 길에도 벽돌로 길을 깔았다. 다 공원에서 철거했던 걸 재활용한 거다. 활용을 위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물이 고인다면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강상호 일부 자재를 사더라도 부분적으로 재활용하는 걸 포함하면 시설팀에서 재활용하는 게 정말 많다. 직원들이 쓰는 간단한 가구나 휴게실의 평상 같은 것도 필요하면 만들어서 사용한다.



워낙 경험과 재주가 많은 분들이 모인 팀이라 사무실에서는 '시벤져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시설팀이 출동하면 '똑딱똑딱'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채석재 전기도 담당하다보니 직원들에게 안전 관련 당부드릴 게 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위험한 일들이 생긴 적이 있다. 공원은 가정에서처럼 차단기가 있어서 그거 내리면 전기가 안 흐르고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상당히 복잡하다. 혹시 누전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한다. 사고가 생기면 대형 사고가 된다. 직원 안전교육을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 할 계획이다.

양승한 나 같은 경우는 시설팀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배우는 단계인 것 같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많아서 좋다. 일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서울숲이 정말 좋다. 오랫동안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해서, 지금은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일 하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는 게 좋다.

김유영 일 하는 게 다 보람이다. 개인적으로 일 안하고 쉬면 몸이 근지럽다.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했었다. 여기서와 비슷한 일이다. 계속 발령이 나니까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전에 어린이공원에서 10년 일했다. 평생 시설 일을 한 셈이라 머리에 박혀 있고 몸에 배어있다. 이 나이에도 서울숲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일 하는 게 재미있다.

강상호 특별한 건 없는데 나는 방문객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공원이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보니 특히 반려견 데리고 산책을 정말 많이 오신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데 배변 후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최근에 개똥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때그때 직원들이 다 치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을 시킬 때 대변은 꼭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사람들이 앉는 곳에 소변을 보게 되면 물을 흘려서 씻어주셔야 한다. 요즘 이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당부 드린다.

시설팀의 기능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경계를 넘나들며 일하고 계신 데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낀다.

항상 작은 문제를 '똑딱' 해결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건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반면에 걸음으로는 크게 티 나는 일이 아니어서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전기나 기계를 다루고, 몸 쓰는 일도 많은 걸로 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L i V E



6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서울숲의 생일입니다. 지난 6월 18일, 서울숲공원에서는 서울숲의 15번째 생일을 맞아 온라인 행사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LIVE>를 진행했습니다.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LIVE>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 활용을 주제로 토크쇼, 숲 투어, 가드닝 프로그램을 '서울그린트러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하는 행사였습니다.

(※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랜선평탁 <너와 나의 서울숲>

: 서울숲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토크쇼



모바일 게임, 공원 사진, 축제 기획, 도시 양봉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숲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서울숲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또,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서울숲을 즐길 수 있는 꿀팁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토크쇼 중간에 진행되었던 서울숲 퀴즈 이벤트는 인기가 아주 뜨거웠죠! 서울숲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퀴즈 이벤트 외에도 아직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 가세요!

※ 이벤트는 서울숲 공식 SNS계정을 참고하세요!

#랜선투어 <서울숲 비공개구역>

: 통제구역 생태숲과 사슴사를 영상으로 만나는 온라인 투어



서울숲공원을 걷다 보면 잠겨있는 철문을 가꿈 보지 못하셨나요? '생태숲'은 식물 보호를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서울숲공원의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서울숲의 15번째 생일을 맞아 15년 동안 쌓아온 생태숲의 이야기를 영상에 차곡차곡 담아보았어요. 영상은 서울숲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랜선킨가드닝 <초록친구 이야기>

: 반려식물 키우기의 기초부터 관리 방법까지 알아보는 가드닝 클래스



사전에 초록친구 '바질'과 '메리골드'가 담긴 씨앗초대장을 보내드리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했었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로 조기 마감되어 아쉬운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해 주셔서 즐거운 수업이 되었답니다.

#랜선평탁

#랜선킨가드닝



서울숲 YouTube 채널 구독 이벤트

서울숲공원 유튜브채널 구독하고 방문자센터에서 선물을 받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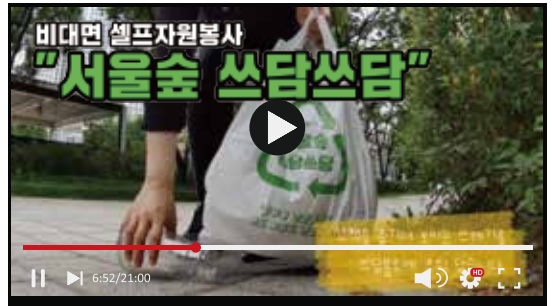


서울숲 방문자센터에서
구독 인증하면 선물을 드려요!
2020년 8월 31일까지



비대면 새로운 일상과 함께하는 셀프자원봉사 함께해요 '서울숲 쓰담쓰담'

무기력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할 때,
[나 혼자 / 반려견 / 아이 / 가족]
공원을 산책하며 '쓰담쓰담' 해보는건 어때요?
👤 지구도 건강하게! 🧘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원을 즐기면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도 지키는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



서울숲공원 신규정원이 열렸습니다!



이특 벤치가든

슈퍼주니어 이특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팬들의 기부로 조성된 벤치가든입니다.

서울숲 16번 출입구(주차장 정산소) 부근



수국정원

신한금융투자의 후원으로 조성된 수국정원입니다. 좁은 산책로를 느리게 걸어보세요.

어린이정원 마녀의집 뒷편



겨울정원

유한킴벌리의 후원으로 숲속빈터 일대를 리모델링하며 조성한 정원으로 자작나무 등 다양한 겨울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숲 숲속 빈터 일대

[서울숲 자원봉사 이야기 3탄]

나무벤치 옷 입히기

공원을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해 본 적이 있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힘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숨고르기를 하곤 합니다. 코로나19로 또 다른 일상이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고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요.

서울숲에는 450여개의 나무 벤치가 공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오래도록 '나무 벤치'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일스테인 칠하기' 활동이 필요합니다. 오일스테인은 나무 벤치의 도색뿐만 아니라 방부, 방충, 방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눈, 비, 햇볕에 약한 나무 벤치가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무 벤치의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붓을 활용해 벤치 하나하나 마다 꼼꼼히 오일스테인을 칠해주어야 합니다. 450여개의 벤치에 오일스테인을 칠하는 활동은 많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며 매년 다양한 그룹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록 지금은 공원 내 자원봉사활동이 일시 중단 된 상태라 나무벤치 옷 입히기 봉사활동을 진행 할 수는 없지만 서울숲에 살고 있는 나무 벤치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새로운 일상이 시작 된다면 오일스테인 칠하기 활동에 손을 모아주세요. 450여개의 벤치에 옷을 함께 입혀주세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웃으며 만날 날을 기다리며,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만난 서울숲 벤치가 잠시나마 당신의 몸과 마음에 힘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서울숲공원에는 나무 벤치 450여개, 나무 피크닉테이블 90여개, 평상 90여개뿐만 아니라 나무 울타리와 데크 등 공원 곳곳에서 오일스테인 칠하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 서울숲 반려동물 캠페인

① 유기동물 캠페인

**! 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마세요**



② 펫티켓 캠페인 - 배설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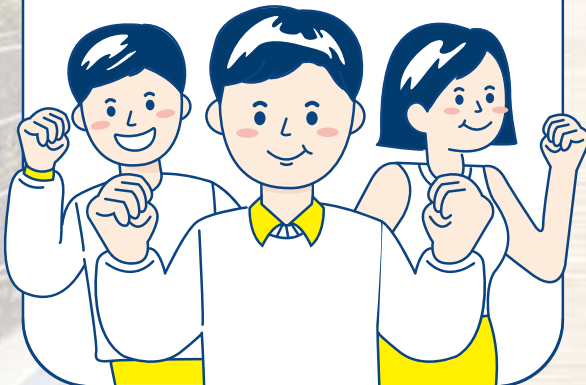
**배설물
수거하기**

- ! 꼭 대변봉투를
지참해주세요!
- ! 소변에는 물을 흘려
뒹처리를 해주세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5가지 핵심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더 자세한 사항은 ncov.mohw.go.kr를
참고해주세요.